

위기의 WTO ... “70여 년 된 낡은 협상 방식 뜯어고치겠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의견 차 크고 무역 부진 TPP 등 지역 협정 잇따라 추진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합의하는 GATT 시절 방식 이전 안 통해 WTO, 조직·다자협상 틀 개혁 필요



세계무역기구(WTO)가 위기다.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만 무성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 화두를 놓고 사공일 본사 고문 겸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과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주했다.

▶사공=올해로 WTO가 출범한 지 20년 됐다. 사무총장이 많이 노력해 80개 나라가 참여한 정보기술협정(ITA)이 거의 성사됐다. 축하한다.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아제베두=한국의 역할이 컸다. 이달 24일 모든 당사국이 ITA에 최종 합의해 주기를 바란다(ITA는 IT제품에 붙는 관세를 폐지하기로 한 합의). ITA는 WTO가 추진한 빅딜이다. 지난해 11~12월에 미국과 중국이 ITA 세부 상황에 대해 의견 차이를 많이 좁혀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다른 회원국들이 참여했다. 이제는 협상 대표들이 자국 정부의 OK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 24일이 바로 그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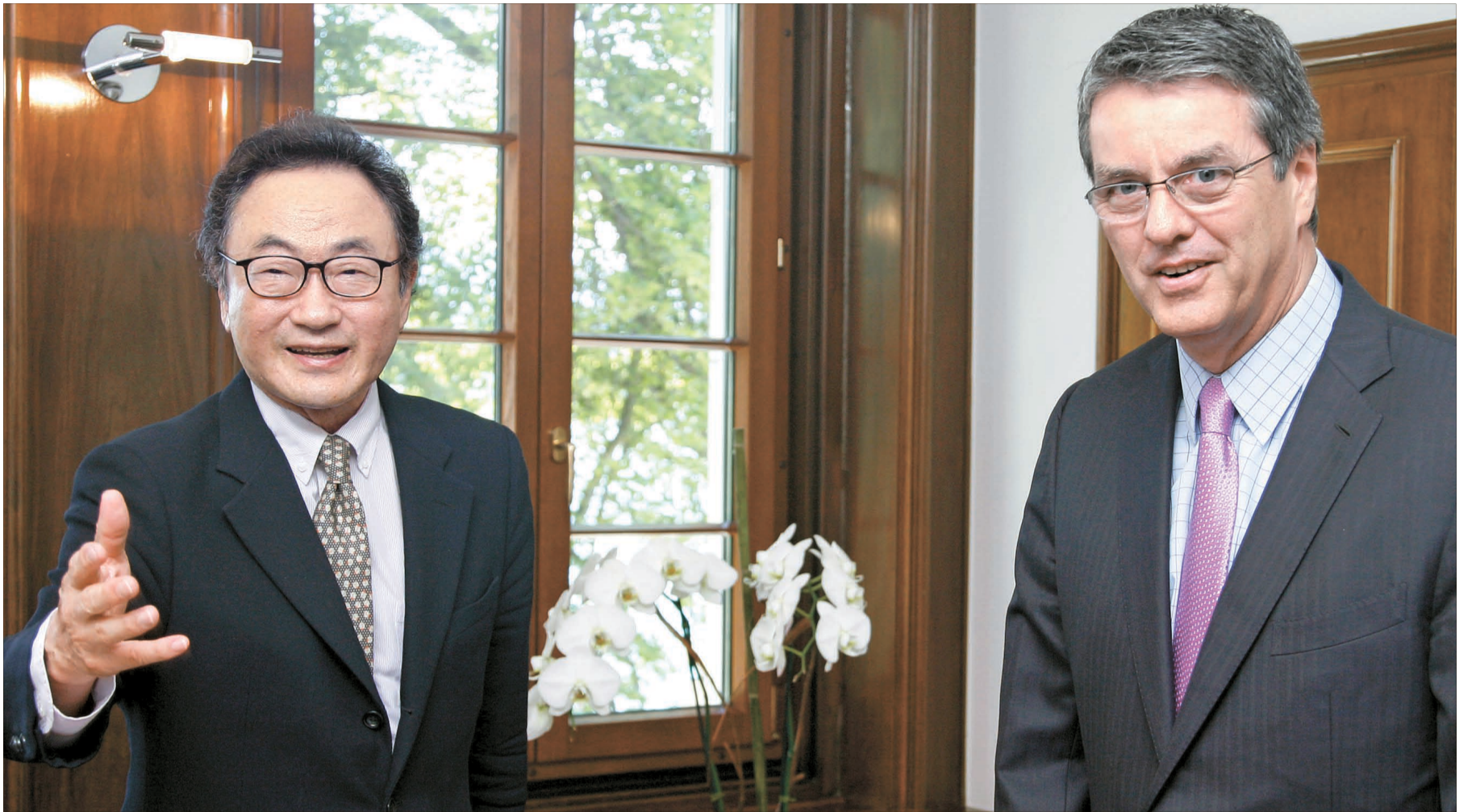
▶사공=ITA가 성사되면 WTO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우선 한꺼번에 모든 사항을 합의해야 하는(Single Undertaking) WTO의 낡고 경직된 협상 방식이 변화된 시대 상황에 적응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중요해질 IT산업과 관련된 합의를 통해 WTO의 향후 협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 더욱 의미 있다.

▶아제베두= 그렇다. ITA는 WTO 협상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모든 회원국이 준비되지 않았는데(협상과 합의 과정에) 반드시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해당 분야에 관련된 회원국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긴 하다.

▶사공=그런데 요즘 세계 무역 상황이 좋지 않다.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갈 때에는 교역증가율이 세계국내총생산(GDP)성장률보다 거의 두 배 높았다. 무역이 세계 경제 성장과 회복을 이끌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무역증가율이 주춤할 뿐 아니라 세계 GDP 성장률을 밀었다. 다행히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전망을 보면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8%, 세계 무역증가율은 4.4%로서 조금씩 나아지나 아직도 세계 무역증가율은 시원찮다. WTO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단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현상으로 보는가.

▶아제베두=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WTO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이 있지 않다. 현재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세계 무역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다. 몇 가지 요인 탓이다. 우선 중국 등 신흥국이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 의존하다 새로운 모델로 전환 중이다. 또 브라질 등 원자재·농산물(상품) 수출국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 경제가 부진하다. 이 요인들이 세계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공=미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환태평양 동맹자협정(TPP)이나 범대서양무역투자 동맹자협정(TTIP) 같은 지역무역협정



사공일 본사 고문 겸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왼쪽)과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최대한 자유롭게 세계 무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요즘 무역증가율은 세계총생산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제 교역이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력 엔진이 아닌 셈이다. 두 사람은 20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만나 차세대 교역 질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한볼네트웍 이순영]

고비마다 중재안 ... 가디언도 “타고난 협상가”

호베르투 아제베두 총장은 누구

“학수고대하고 있다(Cross the fingers).”

20일 스위스 제네바 레만호 인근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실에서 만난 호베르투 아제베두(58) 사무총장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빅딜”이라면서도 “금요일이 중요한 날이다. 이날 반대하면 안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동시에 “이번 주 행복하다”고 했다.

24일 타결을 앞둔 WTO의 정보기술 협정(ITA) 확대 협상에 대한 언급이었다. WTO 체제에서 18년 만에 나온 주요 관세 철폐 협정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중국·유럽연합(EU)과 함께 키플레이어였던 최석영 주그리스 대사는 아제베두 총장의 역할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사무총장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협상이 교착되자 우리들(한·미·중·EU)이 아제베두 총장에게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제베두 총장이 한·중·또 EU·중 간 현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하면서 협상이 재개됐다. 그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협상 타결이 어려운 구조였다”고 전했다.

아제베두 총장은 2013년 WTO 사무총장 당선 직후 “사무총장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리에 앉아서 (당사자들과 협상 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실천한 셈이다.

브라질리아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외교관 출신인 그는 1997년 제네바대표부에서 일했다. 2006년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브라질 대표였고 2008년부터 제네바 주재 브라질 대사를 지냈다. 사무총장으로 당선될 때도 제네바 대사였다. 다수의 통상 분쟁에 소송자로도 참여했다. 영국 가디언은 그를 “재능 있는 협상가이며 다자주의 신봉자”라고 평했다. 이젠 10여 년 묵은 난제인 DDA 협상을 풀어야 하는 아제베두에게 사공 고문이 “체력을 위해 흡연을 준비했다”고 하자 그는 “그게 필요했다”며 웃었다.

제네바·고정재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Roberto Azevedo

- 주 제네바 브라질 대사
- 브라질 외교부 부장관
- 브라질 외교부 분쟁조정 책임
- 브라질리아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 리오브랑코 국제관계대학원 졸업



(R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가 WTO 체제가 무색하게 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총장은 최근 RTA 등을 반대하기보다는 환영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물론 RTA가 그 자세한 내용을 투명하게 WTO에 알려주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강조했지만 말이다. 이 기회에 RTA에 대한 당신의 설명을 듣고 싶다.

▶아제베두=줄곧 얘기해 왔지만 RTA가 여러 군데서 추진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는 비를 막을 수 없다. 자연이 비의 도움을 받듯이 (WTO가 추진한 도하개발 어젠다(DDA) 같은) 다자주의 협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RTA가 또 다른 방법으로 다자주의 무역자유화를 가능하게 하

기도 한다. 문제는 RTA 자체보다 지금까지 다자주의 협상(WTO 중심의)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본 ITA와 2013년 WTO의 발리회에서 채택된 무역원활화에 관한 합의처럼 다자주의 협상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다시 말해 (무역자유화로 가는 데) 여러 가지 방법과 채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공=최근 당신은 이달 말까지는 DDA에 관해 자세한 실천 계획(Work Program)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는 12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WTO 장관회의에 대한 당신의 기대는 어느 정도인가.

▶아제베두=이달 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

다. 나는 회원국들이 자제할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곧바로 12월 나이로비 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행 계획은 최종 합의를 위한 수단이지 아니다. 이런 실천 계획의 한 문장 한 문장을 두고 회원국들이 논의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사공=다시 말하지만 WTO도 과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 때부터 내려오는 협상 방식(모든 회원국이 모든 분야에 관한 합의문 하나하나를 토의하고 동의하는 방식)을 변화된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를 원치 않는 일부 회원국들은 의도적으로 지연작전을 쓸 수도 있지 않은가.

▶아제베두=정말 의미 있는 말이다. 회원국들이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다.

▶사공=WTO에 새로운 임기를 불어넣기 위해 당신에게 한 가지 권고하고 싶다. 올 11월 터키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잘 활용하라는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와중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한 보호무역조치에 관한 스탠드스틸(Standstill: 추가적인 무역장벽 쌓지 않기)과 이듬해인 2009년 런던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의 롤백(Roll-back: 일부 국가가 도입한 무역장벽을 2008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합의가 G20 국가들의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자제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각국은 정상들이 합의한 사실에 반하는 일은 일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자유무역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당신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G20 정상들의 정치적 지도력 없이 복잡하게 얽힌 각국의 이해관계를 실무선에서 해결하고 큰 합의에 이르는 불가능하다.

▶아제베두=아주 좋은 제안이다. 주요국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G20 정상들이 수사적 차원에서만 합의하고 선언문에 한두 문장을 넣는 정도는 의미가 없다.

▶사공=중요한 지적이다. 나는 최근 G20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 적잖이 실망했다. 각국 리더들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WTO의 DDA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결집되면 이어서 회원국 통상장관에게 구체적 임무가 주어지고 실행이 곧바로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다음 G20

정상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아제베두=전적으로 동감이다. 나는 오는 12월 나이로비 통상장관회의 이후에 해야 할 일도 생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앞에서 지적한 WTO와 다자무역협상 자체에 대한 논의다. 요즘 세계 경제는 GATT(WTO 전신)가 이뤄진 1947년보다 훨씬 복잡하고 긴밀하게 통합돼 있다. 이런 변화에 맞는 새로운 조직과 협상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사공=재삼 강조하지만 세계 경제 여건 변화에 맞는 다자무역체제의 WTO 조직과 운영, 협상 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추진되는 RTA와 현재 진행 중인 TISA(서비스무역 합의)와 같은 WTO 밖에서 이뤄지는 교역 합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RTA 등은 차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브레튼우즈와 GATT 체제하에서 큰 변형을 누렸다. 한국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제 달라진 세계 경제에 맞게 브레튼우즈 체제뿐 아니라 WTO도 변해야 한다.

정리=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지역무역협정(RTA)=일정 지역 내 국가들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체결해 이미 발효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RTA의 대표적인 예다. 미국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동맹자협정(TPP)도 RTA의 일종이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GATT) 체제 등 글로벌 차원의 무역협정이 등장하기 전에 강대국을 중심으로 RTA가 활발했다. 최근엔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한 글로벌 차원의 무역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다시 RTA가 활성화되고 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의 접견실엔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과 악수하는 사진이 걸려 있다.